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6월 21일(주일) 제1300호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

6월 24~26일 오전 10시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
이재훈 담임목사, 유기성 목사, 이인호 목사 강의

드디어 이번 주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이 시작된다. 6월 24~26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진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집회를 실시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집회 상황을 각 캠퍼스로 실시간 송출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에서는 24일(수)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나의 영혼아 잠잠해', 이재훈 담임목사 '하나님만 바라라', 이인호 목사(더 사랑의교회) '나의 참 소망'을 주제로 강의한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밝은 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행사 기간 교회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에 도착해서는 예배당 주일예배와 마찬가지로 좌석 QR코드를 찍거나 좌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캠퍼스에서는 6월 23일(화)까지 접수(방문접수)를 받는다. 온라인이나 전화 신청은 받지 않는다. 행사당일 등록도 불가하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결국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할 것은 참 소망되시는 하나님뿐"이라며 "온누리교회 마리아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더욱 간절하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고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
로써 소망의 힘을 체험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문의: 서빙고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

7월 6일(1차), 9일(2차)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온라인(Zoom) 실시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가 7월 6일(1차)과 9일(2차)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막 오른다. 오프라인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온라인은 Zoom(웹미나)으로 참여할 수 있다.

7월 6일 1차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주제는 '뉴 노멀'이다. 윤현덕 장로의 사회로 진행되는 1차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에서는 '성도가 느끼는 세상과 교회의 변화와 제언'을 주제로 윤영각 장로(미래위원회 위원장), 주영재 집사(분당B공동체, 물류 분야), 추혜림 집사(강남D공동체, 학원운영, 자영업 분야), 최선 집사(부천공동체, 특수교사, 장애인 및 특수교육 분야), 김창석 집사(강동 온누리교회, 청년창업컨설팅 분야), 박민정 집사(푸른누리공동체, 조직문화컨설팅 분야)가 토론한다.

7월 9일(목) 2차 세미나 주제는 'The Next?'다. 황진숙 교수(강남공동체, 건국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2차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에서는 창조세계의 생태적 건강 문제를 다룰 생명과학 전문가, 실리콘밸리에서 음성인식기술을 개발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가, 선교사 훈련센터를 이끌어온 선교학 분야 전문가, 코로나19의 보건의료적 관점을 전망할 감염내과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들을 예정이다.

미래준비 세미나 일반 참가자 모집
오프라인 150명, 온라인 500명 선착순

온누리 미래위원회에서는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에 참여할 일반 참가자를 6월 27일(금)부터 1차, 2차 각각 오프라인 150명, 온라인 500명 선착순 모집한다. 오프라인 참가자는 성인공동체 및 대학청년부 리더십 중에서 공동체별로 2인 이내로 참가할 수 있다. 공동체 총무에게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참가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 있는 '온누리 미

뉴 노멀 1차 세미나 일정 _ 1차 온누리 미래준비 웹세미나: 7월 6일(월)

시간(분)	내 용
19:30-19:35(5)	모두 인사(이재훈 목사)
19:35-19:45(10)	순간담화와 설문지 서베이 결과 설명(윤영각 장로)
19:45-21:25(100)	토론 형식: 라운드테이블 토론 토론 주제: 뉴 노멀(성도가 느끼는 세상과 교회의 변화와 제언) (사회자) 윤현덕 장로 / (패널 토론자: 6명) · (순간담화와 서베이 결과 공유 등) 윤영각 장로(미래위원회 위원장) · (물류 분야) 주영재 집사(분당B공동체, 물류회사 대표) · (자영업 분야) 추혜림 집사(강남D공동체, 학원운영) · (장애인, 특수교육 분야) 최선 집사(부천공동체, 특수학교 교사) · (청년 창업 컨설팅, 투자 분야) 김창석 집사(강동캠퍼스, ㈜엘스톤 대표) · (조직문화 컨설팅 분야) 박민정 집사(푸른누리공동체, ㈜블룸컴퍼니 실장)
21:25-21:30(5)	마무리(이재훈 목사)

래준비 세미나 배너'를 클릭한 다음 양식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참가자 500명에게는 Zoom(웹미나) 주소를 이메일로 발송해 준다. 그의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 미래 대비를 위한 그 출발점이다. 성도들의 목소리를 경청, 공유하고,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난 5월 11일 주간과 18일 주간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실시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가 성도들의 의견을 한 방향으로 듣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는 교회와 성도들의 양방향 소통의 장(場)이다. 5월 순예배 간담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성도들과 공유하는 목적도 있다. 설문조사 분석이 끝나는 7월 중에 최종결과를 성도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34, 02-3215-3232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거듭남과 기독교 세계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제는 우리들의 귀에도 낯설지 않은 세계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철학인가 혹은 신학인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인가? 세계관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논리

정연한 이론적 철학도 아니고, 잘 설명되고 조직된 신학은 더 더구나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각자의 일상에 매순간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가까이 있어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다. 우리는 윤리학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각자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산다. 정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정치가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견해는 가지고 있다. 경제학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각자 소견에 따라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관은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을 통해 차곡차곡 형성되는 것이다. 훌륭한 학자가 정립해놓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한 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세계관을 깨닫는 것은 자기인식과 자기이해로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또 자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의 세계관을 아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다.

기독교 세계관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제임스 사이어의 책 <The Universe Next Door>(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에서는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계관이란 이야기이며 실재의 근본 구성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의 집합이다. 이 전제들은 자신이 의식하는 것이거나 무의식적일 수 있고 일관적이거나 비일관적일 수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옳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즉,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큰 고민 없이 형성된 세계관은 편견 혹은 선입견의 집합일 가능성이 높다. 일관성도 없고, 완전히 잘못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편견들의 집합이 우리의 세계관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처럼 재재기하듯 내뿜는 다른 사람의 견해에 감염되어 그것이 나의 견해가 된다. 또 악수하면서 그 사람의 손에 묻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나 자신도 오염원이 되고, 끊임없이 떠돌아대는 선전에 세뇌되어 나도 모르게 그 선전 문구를 읊조리게 되는 것이다.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의 세계관 정립에 너무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주장이 강한 사람의 선전과 선동에 쉽게 휩쓸린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 자신의 세계관을 살펴보면서 정결하게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세계관 정립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세계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살펴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베냐민 지파 유대인으로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은 골수 바리새파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세계관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무리들이란 신성을 모독하는, 돌로 쳐 죽일 죄인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의 앞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 눈이 멀었고, 그가 보낸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된 그의 세계관이 변화되었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바울은 기존의 세계관 위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속성으로 세운 세계관이 혼재하는 시기를 보낸다. 그러나 이전 세계관을 다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관을 제대로 세워 이방의 선교사로 거듭나기까지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인 다소에서 그보다 더 긴 속성

의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거듭남을 체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이론을 허물어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의 기쁨 속에 기존의 세계관은 그대로 둔 채 급하게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게 된다. 이럴 경우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와 세상의 이중적 잣대 위에서 줄타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탈법과 편법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가르침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재해석해야 한다. 물론 현실 속 우리의 선택도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 성공회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 주교는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하는 책”이라고 말한바 있다. 성경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직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을 기준으로 한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요, 성경적 세계관이다.

묵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후 자신의 세계관을 새롭게 정비한 적이 있는가?

충돌하는 세계관 유튜브 강의

: <https://youtu.be/LOEMfEhSFU>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있다면 왜 전도가 필요한가요?”

답: “‘예정(predestination)’이란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에게 전적인 주권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누가 구원을 받을지 베일에 가려져있기 때문에 더 전도가 필요하며 온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정(predestination)’이란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에게 전적인 주권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엡 1:5).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의 지표로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음을 알지 못하게 하신 까닭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귀히 여기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예정의 신비’를 ‘운명론’으로 혼동해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인간의 기계적 예정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나 선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정에 의한 것인가? 이러한 이유로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어디까지 필요한가는 5세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칼뱅은 구원과 예정론을 주장하며 그의 책 <기독교강요>에서 어거스틴의 교리를 보다 체계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인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것을 구원에 대한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로써 오늘날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칼뱅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은 이미 정해져있다고 보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칼뱅의 예정론을 잘못 오해한데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칼뱅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구원과 멸망이 이미 정해져있기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기계적 사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거나 나는 구원을 못 받는 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칫 구원의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은 구원을 인간의 영역에 두지 않으시고 신비로 감춰두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뱅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것이 칼뱅이 예정론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보다 예정(predestination)을 더 강조하게 되면 참된 구원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위대한 복음을 설명하는 서신서인 로마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로마서에 바울은 인류의 구원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바울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사”(롬 9:17-18).

바로에게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고

골탕 먹이려고 구원을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전적으로 모순된다), 바울만의 수사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강조한 것이다. 구원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주는데도 듣지 않으려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다른 대상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미움의 대상이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누가 구원을 받을지 베일에 가려져있기 때문에 더 전도가 필요하며 온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만 할 것이다. 언젠가 그들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시듯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예언들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로 누구를 통해서 보내실 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가난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한 여인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소녀 마리아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소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성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은 결혼과 약혼의 중간상태입니다. 결혼과 같이 법적인 상태를 보장 받는 관계였지만, 약혼처럼 함께 살지는 않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혼문화가 있는 유대 민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관계였다면 동정녀의 탄생이 어려워지고, 약혼관계였다면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법적보호를 받고, 약혼처럼 아무 관계없는 때에 태어나야 동정녀의 탄생이요,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 사생아가 되지 않는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기가 막힌 정혼문화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요셉의 고민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에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요셉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 마리아와 단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여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책임이 아닌데 정혼한 남편 요셉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스러웠을까요. 요셉이 받아들인다 할지

라도 정혼한 상태에서는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간음한 것 같은 동일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마리아가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둘째,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고 셋째,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가톨릭처럼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거나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도 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고 높이 평가하는 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받아들이지 못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제사장 사가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징계를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직책이 믿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발견하며 놀라는 ‘믿음’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28절).

‘기쁨’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기원이 같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은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쉽고 편안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인사를 받았을 때 당황해서 깜짝 놀랍니다. 이 당황과 놀라움은 불신앙의 사람이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 계시, 말씀, 임재가 주어졌을 때 그 영혼이 깨어 놀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인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회당에서 늘 배우던 율법의 내용을 통해 이 인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사로 사용하실 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인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발견하며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적용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어떤 말씀인가’라고 놀라며 우리 영혼의 깨어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경험이요, 지식이요, 내가 그 말씀을 이미 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말씀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늘 깨어 있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 놀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은 재난이 와도 놀라지 않고, 종말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종말이 와도 놀라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도 놀라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의 한복판에서도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놀랐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소망의 노래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애 3:22-23).

도시가 재건되고 있어서 새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예레미야의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미래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내다 보면서 아침마다 새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섭리에 정직하게 질문하는 ‘믿음’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30-33절).

역사 속에서 하신 모든 예언이 그 한 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예언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강대국들이 세상을 계속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 모든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멸망할 것이며,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34절).

이것은 불신앙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섭리의 도구가 될 때 정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섭리의 통로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순종의 질문, 더 이해하려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안셀름이라는 신학자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이해를 추구하는 질문입니다. 사가랴는 마리아와 비슷한 처지였지만 정반대로 “저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어떻게’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한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역

코로나19 사태 초기, 놀라기는 했지만 쉽고 미웠던 일을 정리하는 기회라고 여겼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간이 연장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과 지루한 일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는 지금과는 다른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압박했다.

“이제 물려나 편안하게 쉴 나야. 그만하면 됐어.”

스스로 합리화 시키면서 집 앞 공원에 나갔다. 잔디에 개털이 군데군데 소복이 있었다. 개 주인이 털갈이 철이라 털을 빗겨주고 그냥 떠난 것 같다. 그때 까지 한 마리가 털 한 뭉치를 입에 물고 달아났다. 아마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 그 털로 보금자리를 폭신하게 깔아주려는 것 같다고 남편이 말했다. 미물인 까지도 자기 새끼를 위해 준비하는데, 우리도 다음세대와 통일세대를 위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게로부터 시선을 옮겨 주를 바라보았다.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했을 때 뼈들이 연결되고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겔 37:1~10)는 말씀이 생각났다. 예언은 앞날을 맞추는 점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알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창의적인 전도방법이 필요하다. 복음을 담는 그릇은



박인숙 권사가 명함전도지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있다.

시대와 세대에 맞게 만들어 전하고 싶었다. 누구나 함부로 버리지 않을 앙증맞고 예쁜 명함전도지를 만들었다.

“GOD LOVES YOU!(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WITH YOU!(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하십니다)”

“YOU ARE SPECIAL!(당신은 특별합니다)”

명함 뒷면에 들어가는 기도문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쉽게 받아들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썼다. 공원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네 명이 정답게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었다. 예쁘다고

칭찬하고 “이것 좀 읽어줄 수 있어?”라고 말하며 명함전도지를 내밀었다. 아이들은 신나서 서로 읽으려했다. 영어실력과 발음이 원어민 같다고 또 칭찬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

“난 너희들에 대해 자세히 모르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 사랑하면 함께 교제하며 친하고 싶잖아. 뿐만 아니라 너희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너희를 통해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셔.”

그 중 유독 한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라며 반응했다. 사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명함 전도지를 한 장 더 주면 동생에게도 전하고 매일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다시 다니겠다고 했다.

또 한번은 “인생이 안 풀리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대라”는 분을 만났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 증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선생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존적 문제는 죽음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죽음 앞에 직면하면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고 싶다고 고백했다. 마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에게도 명함전도지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다. 혼자 보기에 아까워 고객들도 볼 수 있도록 거울 앞에 붙이겠다고 했다. 이 명함전도지를 상황에 따라 살을 붙이고 예언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전도하는 분들에게 명함전도지를 공유해서 복음을 퍼뜨리고 싶다. 이곳 저곳에서 뼈들이 덜거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생기가! 들어갈지이다.

/ 박인숙 권사(신용산공동체)

나고야 온누리교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고야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호석 목사입니다. 나고야 온누리교회는 일본의 3대 도시 중 하나이며,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본사가 있는 나고야에 세워진 온누리교회 해외비전교회입니다. 현재 성인기준 60명의 성도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본인 성도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일본에서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본 정부가 전국에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외출자제는 물론 식당이나 상점, 영화관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5월 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습니다.

나고야 온누리교회는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사태선언이 시행되었을 때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다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됨에 따라 다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재개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당연하



나고야 온누리교회가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다.

게만 여기던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예배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그 감동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확실히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 비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표정과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엿보게 되었

습니다. 나고야 온누리교회는 성도님들이 최대한 안전한 환경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고야 온누리교회도 올해 교회 표어처럼 더욱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주변의 이웃에게 전하도록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예배와 평일 기도모임 등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꿈꿔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일본 영혼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나고야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일본의 7개 비전교회들을 기억해주시고, 함께 중보기도의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정치와 경제, 역사적 문제를 넘어서 하나 되고, 함께 세계선교를 감당할 형제이자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 CGNTV, 두란노서원, 리브소나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정호석 목사(나고야 온누리교회)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요양센터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설 명절 이후 코로나 19 감염증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등 모든 방문객을 제한하였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센터에는 직원 외에는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특성상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어 치명률 또한 높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감염예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대응지침’에 따라 매일 어르신과 직원들의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확인, 1일 2회 소독, 마스크 착용, 식사할 때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교육, 휴일 고강도 거리두기 실시 등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봉사자들의 방문으로 활기가 넘치던 온누리요양센터에는 매일매일 보도되는 특보와 함께 걱정과 근심들이 채워졌으나 그 덕분에 안전과 멀리 있는 가족들을 위한 어르신들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 모여 드렸던 뜨거운 예배는 CGNTV를 통한 새벽 및 주일 영상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이 시기를 모두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온누리요양센터는 면회, 외부접촉이 제한된 어르신들을 위해 개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이후 가장 큰 괴로움은 아무래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만날 수 있으려나 기대했었는데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편지와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준비한 카네이션과 특별간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영상편지를 통해 가족들을 마주하며 환한 웃음을 보이시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면회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보호자들이 궁금해 하실 어르신들의 상황을 전화와 문자메시지, 사진으로 소통하고, 어르신들이 큰 화면으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태블릿PC도 구매해서 디지털 면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의 모습, 너무 반가워 함박웃음을 짓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가슴 깊은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진행되

었던 면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생각해 됩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어렵지만 어르신별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센터의 푸릇푸릇한 정원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직원과 함께 산책하며 봄의 향기를 만끽하였고, 이제는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서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즐겁게 면회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이주현 과장(온누리요양센터)

온누리요양센터 기도제목

1.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온누리요양센터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2.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주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3. 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4. 어려운 시기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깨어 기도하도록

온누리복지재단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에는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꿈의집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세 기관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청소년들이 단체로 사는 생활복지시설입니다. 코로나19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며 안전대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의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지침(현재 대응지침 4판 진행 중)을 내놓고 산하복지시설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지침에 따라 빠른 대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은 주된 사업이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과 3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만나지 못했고, 4월 들어서부터 조금씩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후기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이다 보니 정규직보다는 편의점, 음식점, 물류센터, 건설직, 공장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용직으로 생계를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는 각 기관과 청소년들에게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파트타임으로 변경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도 받고, 검정고시, 수능시험준비도 하고,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조금 더 나은 삶과 진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의집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휴원이 권고되었던 2월 24일부터 휴원했습니다. 휴원 기간 동안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학습공간을 재배치하고, 온라인 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정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결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1회 부식을 구입 및 배부하고 있고, 직접수령이 어려운 가정은 선생님들이 아동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급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유선으로 아동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의 가장 중요한 예방 백신은 저희 기관을 위해 늘 사랑과 관심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는 온누리교회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늘 저희 기관과 입소청소년과 예배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셨던 성도님들이 지금은 기도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편하고 즐겁게 모였던 활동과 만남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권능으로 청소년들을 잊지 않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또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너무나 든든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지혜롭게 이겨내고 속히 반갑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들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유호연 실장(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 기도제목

1. 주님의 선하신 권능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도록
2. 코로나19 상황을 겸손하게 회개하며, 지혜롭게 이겨내도록
3. 주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주님의 선하신 권능으로

공감소비운동 그 아름다운 현장

용산공동체 기쁨다락방-성심모자원

내가 속한 용산공동체 기쁨다락방은 평소에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왔다. 기쁨다락방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때 교회와 공동체가 ‘공감소비운동’이라는 작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쁨다락방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다가 용산구에 있는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찾아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을 찾았다. 우연한 기회에 용산구 도원동에 소재한 ‘성심모자원’이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다.

성심모자원은 625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故 우영득 목사와 한봉녀 사모가 만든 전 쟁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모자원이다. 현재 13세대 한부모가정(다섯 세대는 미혼모가정)이 입소해있다. 그들은 성심모자원에서 3년 동안 보호받으면서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 성심모자원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다. 한 명의 자녀(3세~초등3학년)와 함께 지내고 있고, 그 중에서 두 아이는 지적장애로 인해 병원치료 등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쁨다락방에서는 성심모자원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



용산공동체 기쁨다락방은 성심모자원 입소 자매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았다. 지난 5월 8일과 9일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5월 10일(주일) 2부 예배 후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함께 모여 물품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그리고 성심모자원을 방문했다. 성심모자원 간사님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셔서 기쁨다락방 지체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코로나19로 인해 혹시 성심모자원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간단하게 공감소비운동을 소개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돌아서려는데, 한 미혼모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5월 13일 갑상선암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기다렸다고



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다. 기쁨다락방 지체 두 분은 힘내라며 그녀에게 위로금을 건네기도 했다.

공감소비운동으로 선물을 전하고 나서도 기쁨다락방 지체들은 성심모자원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심모자원 사역이 공감소비운동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와 사회선교본부에 보고했다.

성심모자원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덟 가정이다. 그들을 전도해야 한다. 특히 두 명의 장애아동을 사랑부(온누리교회 장애인예배공동체)로 인도하고 싶다. 이밖에 순모임 및 일대일, 상담 등의 사역들이

성심모자원에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과 시련에 희망 없이 지내는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우리의 작은 소망의 날갯짓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우리의 선행을 통해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사역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나누고 공감하게 되어 감사하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

/ 허철 다락방장(용산공동체)

하늘대학부-연천 원당교회 외 5개 교회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여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 공감소비운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체험했다.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공감소비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모이기로 한 날 갑작스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에 우리는 예정에 없던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이촌종합시장의 한 상점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크기가 작아 우리가 구입하려는 물품을 모두 구매할 수 없었다. 크기가 더 큰 용문전통시장으로 이동했다. 출발하기 전 주차문제가 걱정되었는데 시장에 다다르자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우체국이 보였고, 그곳에 주차할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차한 곳 바로 앞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만물상이 있었다.

예정에 없던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가 와서 차를 타게 됐고, 먼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계획했던 것보다 무겁고 많은 물건들을 쉽게 운반할

수 있었다. 우체국과 주차 공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만물상까지 일사천리였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이 분명했다.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일반 대형마트에서는 대면하거나 대화할 일이 별로 없다. 잘 진열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와 계산하면 끝이다. 요즘에는 그마저도 셀프 계산으로 더욱 단절된 사회를 살고 있다. 그런데 직접 상인들과 만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물건을 구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웃음꽃을 피우셨던 어떤 분은 우리에게 음료수를 챙겨주시고, 서비스로 물건을 하나 더 얹어주시기도 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유은성의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라는 CCM 가사가 떠올랐다. 하나님의 사역은 늘 여러 가지로 얻는 게 더 많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막힘없이 사역이 진행되어가던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다. 구매하려 했던 물품 하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물품을 다 배송하지 못하고 다시 이촌종합시장으로 와서 일단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하늘대학부 청년들이 연천 원당교회, 국사봉 살롬교회, 햇빛교회, 중앙상승교회, 신교대 사랑의교회, 영월 영광교회에 공감소비운동 물품을 전달했다.

하기진 배를 채웠다. 그리고 의는 끝에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가 없으니 다른 것을 더 채워서 보내기로 했다. 대신 채워 넣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처음 들렀던 이촌종합시장에 있는 상점에 들렀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그곳에 우리가 찾고 있던 물품이 있었다. 그곳에서 구한 물품까지 챙겨 사역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물품들을 빠짐없이 보낼 수 있었다. 처음 그 상점을 나올 때는 헛걸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공감소비운동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

/ 정주섭 형제(하늘대학부)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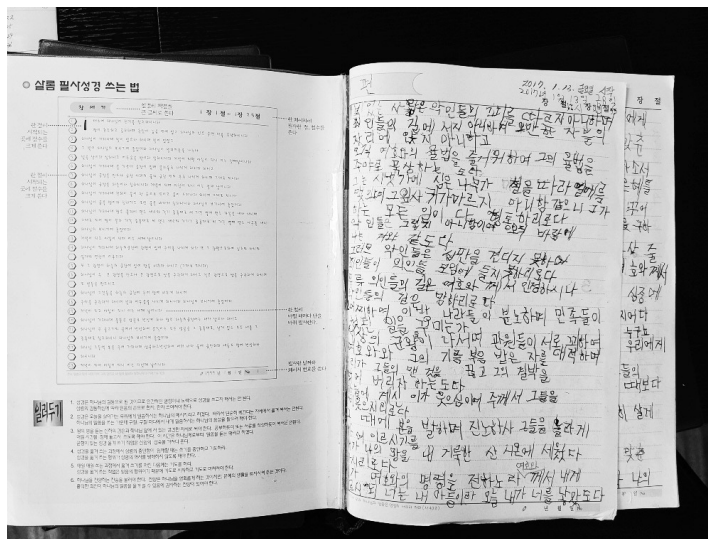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보 몇 살이에요?”라고 묻는 아내 조한옥 집사(양재공동체)의 말에 김이경 집사(양재공동체)가 왼손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새끼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지 6년째라는 의미다. 김이경 집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온몸이 마비가 됐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도, 편히 누울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지만 기적적으로 회복된 왼손으로 성경 66권을 필사했다. 꼬박 3년 6개월이 걸렸다. 성경을 바라만 봐도 눈시를 뿜히는 김이경 집사의 지난 6년의 간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3년 6개월 만에 완성한 성경 66권”

기적적으로 회복된 왼손으로 성경필사한 김이경 집사



회복된 왼손으로 성경필사한 김이경 집사(왼쪽), 김이경 집사의 성경필사 노트(오른쪽).

“할렐루야”, “아멘.”

김이경 집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이 두 마디는 그 어떤 고백보다 값졌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다. 인터뷰를 진행한 2시간 동안 김이경 집사에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저 두 마디가 전부였다. 한 번은 환하게 웃고, 또 한 번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내뿜은 저 두 마디가 나의 눈물샘도 터트렸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 그리고 시작된 제2의 인생

6년 전이었다. 갑자기 김이경 집사에게 뇌출혈이 발생했다. 온몸이 마비 됐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꼬박 2년을 보냈다. 그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까지 생겼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힘들었다. 아니 불가능했다.

김이경 집사는 뇌출혈 발생 당시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큰돈은 아니어도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다. NGO단체를 후원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도 쉬지 않았다. 깨끗한 물이 필요한 곳에는 우물을 설치해주고,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기도 했다. 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 람이었다. 그 아름다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고난이 시작됐다. 아내 조한옥 집사는 갑작스레 찾아온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괴롭고 끔찍했다. 조 집사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왜 이

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 그래도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묻기만 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없는지, 내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계신 건 아닌지 답 없는 질문만 자주 떠올라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보기로 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적적으로 김이경 집사의 의식이 돌아왔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손가락 한 마디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도 부부는 감사기도를 드렸다.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지만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찾은 그날이 자기가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비록 건강하던 신체를 잃고, 지금껏 일궈온 회사에 나갈 수 없고, 간단한 말 한 마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시작했다. 김이경 집사의 가족들도 그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고 축복했다. 제2의 인

생이 시작된 지 일 년째 되는 날에는 병원에서 돌잔치를 열고 감사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완전마비 상태에서 그림 그리기와 성경필사까지

김이경 집사는 재활훈련과 언어치료 등을 받으면서 2년이라는 길고 긴 병원생활을 마무리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훈련과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회복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에 적응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김이경 집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졌다. 밤 한 손가락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좌절하고 아파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 몇 개월 흘렀다. 김이경 집사의 아픔을 곁에서 묵묵히 바라보던 조한옥 집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했다. 부부가 매일 함께 CGN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다. 김이경 집사의 왼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다리와 오른팔은 여전히 꼼짝할 수 없었는데 왼손에는 조금씩 힘이 들어갔다. 마치 하나님이 남겨주신 선물 같았다. 조한옥 집사는 김이경 집사의 손에 붓을 쥐어줬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기가 버거웠던 것 같아

요. 걸을 수 있다면서 매일 집 앞 공원에 데려다 달라고 때를 쓰곤 했어요. 왼손이 회복되면서 제가 남편에게 붓을 선물했어요. 그림을 그리면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필사하기 위한 연습이었어요.”

김이경 집사는 그림을 그리면서 왼손이 점차 더 회복됐다. 전보다 자유롭게 왼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이경 집사는 곧바로 성경을 찾았다. 빼빼빼뿔한 글씨였지만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성경 말씀을 따라 적었다.

김이경 집사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떠서 성경과 QT책을 펴다. 그날 QT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는다. 한 구절이라도 놓칠까 싶어 성경 위에 동그라미를 차가며 꼼꼼하게 읽는다. 그렇게 말씀 묵상이 끝나면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성경필사를 한다. 한 글자 한 글자 얼마나 신경 쓰며 쓰는지 왼손으로 쓴 글씨인데도 노트 줄을 빗겨가지 않고 반듯하다. 그토록 소중하게 한 자 한 자 쓰기 시작한 성경 필사가 3년 6개월 만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 66권을 완성했다.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걸어 온 6년

조한옥 집사가 지난 6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김이경 집사는 옆에서 환한 웃음을 짓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성경필사 이야기를 마친 후에는 떠들떠들 “할렐루야”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 보이는 김이경 집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한참 눈물을 흘리던 김이경 집사가 이번에는 “아멘”이라고 말하며 웃어보였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고백이 떠올랐다. 김이경 집사는 아무도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았다. 김이경 집사가 아내의 입술을 빌려 기도제목을 나눠주었다.

“제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걸어 온 지난 6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저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70주년

6.25 한국전쟁과 한국 교회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한 영혼 돌보고 위로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며 동족상잔의 비극과 상흔을 기억하고, 민족 통일을 위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다. 또한 교회는 전쟁 한복판에서 순교와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역할과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봤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동족 간의 끔찍한 전쟁이 3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대한민국 국군과 UN군 170만 명, 북한과 공산군 210만 명이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기간 국군 사망자가 13만7천 899명에 달한다. 부상자와 민간인 사상자까지 더하면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다. 당시 한국 교회와 신앙 선배들은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돌보고 위로했다.

“아무리 위태한 때라도...” 군종목사 전쟁 한복판에 서다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첩관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군 제30사단 10공공대대에 근무하던 한국인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에는 군종장교가 있었는데 당시 국군에는 군종제도가 없었다. 극동사령부 군종부장 이반 베네트(Ivan L. Bennett) 군목은 대한민국 국군에도 군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승만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군종제도 설립을 건의했다. 당시 한국 교회가 피란민과 부상 장병들을 돌보고 위로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한국군 병사들(왼쪽), 1952년 8월 미군 장교에게 세례를 받는 한국군 병사(오른쪽).



는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에도 군종목사를 선발할 것을 명령했다.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국군 군종목사 선발했다. 1951년 2월부터 1953년 4월까지 투입된 군종목사는 약 270명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 6개월 이상 참전한 군종목사 중에서 생존자가 3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했다. 정일권 참모총장은 6.25 한국전쟁 당시 군종목사들의 활약을 이렇게 평가했다.

“군내에 종교를 끌어들이면 성가실 것 같아 전쟁이 매우 치열한 때 군으로서 다른 업무를 더하는 것은 전쟁 수행 상 어려운 짐이 될 것 같아서 이를 고려해 곤란하다고 상신하였다. (종락) 대통령의 유시를 받들어 군목제도의 창설을 보게 되었고 제일선 참호까지 군목의 따뜻한 손이 미치게 되었다. 나는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제일선 진영에서 오랫동안 군목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무리 위태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사병들은 군목을 자부(慈父)와 같이 믿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군종목사들의 헌신이 큰 열매를 맺었다. 휴전 이후 1954년 국군 장병 중에서 24%가 크리스천이었다. 국군과 UN군은 전쟁포로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포로 13만 명 중에서 6만 명이 결신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다.

핍박, 순교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다. 당시 신앙 선배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다. 북한군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독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9월 28일 서울 수복을 전후로 후퇴하기 시작한 북한군은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예배당을 불 질렀다. 장로교 152개 교회, 감리교 84개 교회, 성결교 27개 교회, 구세군 4개 교회가 파손됐다. 또한 순교나 납치당한 목회자와 성도가 200여 명을 넘었다. 손양원 목사, 문준경 전도사 등 한국 교회 순교자의 70%가 6.25 한국전쟁 당시 희생됐다.

전라북도 김제 만경면에서 한약방을 운영했던 강성진 장로(만경교회)는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이 마을을 점령했지만 피난을 가지 않았다. 공산군에게 끌려간 뒤에도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구급생활을 했다. 공산군은 1950년 9월 25일 강 장로를 끌고 가 양팔을 철사로 묶고 몽둥이로 온몸을 때린 뒤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강성진 장로처럼 6.25 한국전쟁 당시 순교자 대부분은 끝까지 지역에 남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다 목숨을 잃은 이들이었다.

북한군의 핍박은 전국적으로 이어졌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가 시작되자 북한 지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날 이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한강 이북의 교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해방 이후 북한에는 2천여 개의 교회와 2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6.25 한국전쟁 이후 어용교회를 제외하고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 교회는 이웃들을 돌보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수십만 명에 불과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천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 이재민, 고아, 미망인들을 섬기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피난민, 이재민, 고아, 미망인들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전도했다. 6.25 한국전쟁 중에도 부산

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전도집회가 열렸고, 장로교는 1952년을 ‘전도의 해’로 정하고 전도에 총력을 쏟았다. 그 열매가 실로 대단했다. 1950~1955년 동안 남한에 2,050개의 교회가 개척됐다. 성도들도 엄청난게 늘었다. 학자들은 남한에서의 엄청난 부흥의 원인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전도와 사회봉사 등이 탁월한 효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또한 한국 교회는 6.25 한국전쟁 중에도 부산 등지에서 야학을 하며 배움과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 입양기관, 전쟁으로 장애를 입은 상이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한 재활사업도 적극 실시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할 때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흘렀다.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다양한 대북사업에 앞장서며 화해의 장을 조성하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신앙생활을 돕기도 한다. 통일의 역군으로 쓰임 받을 탈북민들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통일위원회를 발족해서 각계인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북음통일을 모색하고 있고, 시민들과 성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에 또 다시 막구름이 끼고 있다. 지금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다. 6월 24일부터 3일 동안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6.25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진 ‘소망의 힘’이 막 오른다.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자.

예배당 주일예배, 영상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순장모임, 순예배. OBC 성경공부 등도 온라인 실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풍경.

예배당 주일예배, 영상예배, 드라이브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다. 영상예배는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에서 토요주일예배 1~3부, 일요주일예배 1~7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토요일 없음)가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대학청년부(홀리스타 포함), 외국어예배, 장애인예배(사랑부) 주일예배도 각 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드릴 수 있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매주 주일 오전 8시, 오전 9시 30분에 드린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참석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예배당 차량 250대를 선착순 마감한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가급적 자동차 안에 머물면서 성도들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자동차 창문을 열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예배가 끝나면 빠르게 출차해야 한다.

공동체 순장모임, 순예배, OBC 성경공부,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로 예배당 예배 예약을 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18시)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목회행정실로 전화하면 된다. 등록교인만 할 수 있다. 교회에 와서는 임시행정실(임시 데스크)에서 예약확인을 하고 예배당에 입장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2-3215-3220, 3263, 3661
양재 02-570-7349, 7469, 743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특집 다큐 '복음으로 빈곤을 치료하라'

CGNTV,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첫 방송

CGNTV가 뜻 깊은 다큐멘터리를 또 한 편 제작했다. 전 지구적으로 빈곤과 전쟁에 시달리는 이들을 구제하는 사역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다큐멘터리 '복음으로 빈곤을 치료하라'이다.

CGNTV 특집 다큐멘터리 '복음으로 빈곤을 치료하라'에서는 과거 구제사역의 한계를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6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CGNTV에서 방송된다.

로 빈곤을 치료하라'에서는 과거 구제사역의 한계를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6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CGNTV에서 방송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6월 비전헌금 2억 6천만 원 봉헌

긴급구호 및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후원

지난주(6월 13~14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6월 비전헌금 2억 6천만 원을 봉헌했다. 6월 비전헌금은 NGO 더멋진세상이 제3세계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긴급구호와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후원하는데 사용한다. 7월 31일까지 이어지는 NGO 더멋진세상 온라인 정기후원약정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제3세계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는 탁월한 방법이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나 QR코드, 전화 등으로 참여하면 된다.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3-910010-692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8

* 정기후원약정 QR코드



2차 취약계층 식량지원

인도네시아 바뚜바닥 마을 여성, 아동 442명 대상

NGO 더멋진세상이 인도네시아 바뚜바닥 마을에서 '2차 취약계층 식량지원'을 했다. 바뚜바닥 마을은 람퐁족이 거주하는 무슬림 촌락이다. 980가구 주민 3,100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2차 취약계층 식량지원은 한부모가정, 임산부,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부모 가정과 임산부 192여 명에게 식량패키지를, 5세 이하 영유아 250여 명에게 영양죽, 과자류, 비타민 등이 포함된 유아용품세트를 전달했다.

NGO 더멋진세상 현지 사역자는 "앞으로도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자 역할과 변화의 주체자인 여성과 아동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관계기술훈련 스태프 온라인 훈련

7월 1일부터 7주 동안

회복사역본부에서 관계기술훈련 스태프들을 위한 온라인 훈련을 실시한다. 오는 7월 1일(수)부터 7주 동안 진행된다. 기존 관계기술훈련 스태프들과 올해 새로 섬기게 된 스태프들이 대상이다. 관계기술훈련은 낮반과 저녁반으로 나눠 실시된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강의한다.

이기원 목사는 "관계기술훈련은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관계기술훈련 스태프들이 먼저 훈련 받고 다음 학기 관계기술훈련에 참가하는 성도님들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두란노어머니학교,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을 주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채널이다. 성도들의 질문과 사연을 신청받아 멘토들이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회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아이들과 생기는 갈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회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쏟아내고 후회하는 엄마'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 등록되어 있다.

이메일: motherschool@korea.com

문의: 02-2182-9114

주일예배 봉사자 모집

한터, 허브대학부, J4U공동체

한터공동체와 대학청년부(허브대학부, J4U청년부)에서 예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터공동체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를 섬겨줄 피아노(신디) 반주자를 구하고 있다. 연습시간은 주일 오전 8시 30분이다. 한터공동체는 탈북사역공동체다. 강서구 등촌1동 양천로 504(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허브대학부 예배팀에서는 영상팀, 챔버팀(첼로, 콘트라베이스), 조명팀 봉사자를, J4U청년부 예배팀에서는 음향, 찬양(세컨 건반), 조명, 사진(개인 카메라 소지)을 섬겨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한터공동체 010-9071-3076

허브대학부 010-9956-6752

J4U청년부 010-5312-4333

"안정성 기준으로 복음적 가치 제시하는 교회"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대토론회

지난 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주관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대토론회'가 막 올랐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김호기 박사(연세대학교)가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김기태 박사(호남대학교)가 '코로나19 한국 교회에 바란다', 임성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 김호기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디지털혁명, 높은 불확실성이 21세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기태 박사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일들을 지혜롭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임성빈 박사는 "앞으로는 안정성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복음적 가치를 제시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 아트비전 정기전

온누리 아트비전 정기전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가 8월 14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카페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최은정 'Above All', 이미란 '사랑 노래', 신

수하 'For Him alone', 김정수 '오직 주님만' 등 크리스천 작가 23명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문의: 010-7167-6008

바로잡았습니다

지난주 온누리신문(1299호) 7면에 보도된 W공동체 공감소비운동 기사 사진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온누리신문(PDF 파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적극적 경청, ‘진정 잘 들어주는 것’의 의미



한건수 교수
(수원 온누리교회,
국민대 겸임교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캠프 수프 컴퍼니의 CEO였고, 현재 코네티티 더십센터 대표인 더글러스 코넬트는 두 사람 이상이 일상의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만남의 기회를 ‘터치포인트(Touch Points)’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터치포인트의 중요함을 경영을 통해 증명했는데, 그가 회사에서 직원을 만나는 순간인 터치포인트 때마다 “제가 어떻게 도와줄까요?”라고 직원에게 질문했다고 한다.

코넬트는 만보계를 차고 매일 걸으며 만나는 직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타인을 돕고자하는 진정성이 결국 결과로 돌아왔다. 그가 캠프 수프 CEO로 부임한 2001년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2:1(직원 2명은 몰입하고 1명은 일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함)이라는 최악의 직원 몰입도를 기록했는데, 2010년에는 조직 몰입도가 17대 1까지 높아졌다(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957:1).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니까 회사 수익과 매출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훗날 그가 이러한 좋은 결과에 대한 과정을 <터치포인트>라는 제목의 저서에 자세히 설명할 정도로 그에게 만남의 기회는 신뢰를 통해 열매를 맺는 핵심 중 핵심이었다.

바디매오와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인파 속에 여리고에서 나가시던 중에 애처로울 정도로 열심히 “다윗의 자손 예수”를 목청껏 외치는 사람을 보게 된다. 그는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른다. 눈먼 바디매오다.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질문하신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그 느낌이 매우 다르다. 모르는 것을 알고자 묻는 말이 아니기에 그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눈길과 마음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조용히하기를 바랐던 바디매오를 향한다.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가라 네 믿

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았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인정까지 하셨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눈길을 받지 못했던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만나 육체의 눈을 뜰뿐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의 이후 삶은 어떠한가? 성경에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막 10:52)고만 표현되었지만, 아마도 기뻐 뛰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분주함에도 예수님은 그 순간을 한 영혼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셨다. 그렇다. 예수님의 초점은 평생 눈 뜨길 바랐던 바디매오라는 한 사람의 영혼에 맞춰져 있었다. 한 사람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그 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한 사람에게 질문하시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며, 그 영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 모두가 그 문제에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몰입해서 질문하는데 유독 한 사람, 정작 고민을 말한 사람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음을 그의 표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왜일까? 문제를 둘러싼 현상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왜 정작 문제의 주인공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기뻐하기보다 힘들어하고 피곤해할까? 워크숍이 끝나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누구도 그가 힘든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대상의 마음을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한 공감보다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해결자로서 그 문제를 대하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면 조직의 머리 아픈 한 가지 이슈가 해결된다. 조직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다양한 상황

의 깊은 신뢰가 상호 간에 형성된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잘 듣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적극적 경청을 하면 할수록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길 때도 많다. 하지만 적극적 경청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적극적 경청을 받아본 경험을 떠올려보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필자도 이 글을 적으면서 한 분이 떠오른다. 지금의 내가 성숙하는데 가장 많은 자양분을 주신 어머니다.

중학교 입학하기 전 상당히 몸무게가 나가던 나는 입을 옷마다 태가 나지 않았다. 그때마다 엄마에게 불멘소리로 “엄마 어떻게 하지? 너무 똥똥해”라고 말했다. 물론 당장의 해결책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현 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하는 불평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두려워하는 나를 향해 “걱정하지 마. 그 살이 모두 키로 갈 거야”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셨다. 중학교 때 나의 키는 다른 친구들보다 큰 상태가 되었다. 어머니 말씀대로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대학에 입학했다. 공과대학교에서 과대표가 된 필자에게 걱정이 생겼다.

“엄마, 과대표는 술을 마셔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어머니는 한결같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미소로 “건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거야. 술 안 마셔도 돼”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정말 술을 마시지 않고 신입생 생활과 과대표를 마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직장생활까지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따뜻하게 감정은 받아주시며, 늘 하나님 안에 대안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씀해주셨다. 가장 좋은 답이 있음을 믿으셨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바보같이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다. 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봐주시는 동역자가 되어주셨다. 그 일관성과 마음의 여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돌아보면 어머니는 아버지와 새벽기도를 마치고 늘 잠든 자녀를 위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다. 새벽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짐작이 간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주셨다.

진정으로 잘 들어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삶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능력이 된다.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부한 일상과 대상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순간과 새 생명의 열매로 이어질 것을 믿는다.

진정으로 잘 들어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질문하시고,

그에게 귀 기울이시며,

그 영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셨다

를 느끼게 하셨다. 그의 고백을 들음으로

그 시작이 바로 ‘적극적 경청’

필자가 한 스타트업 기업의 임원과 팀장급 리더를 대상으로 ‘적극적 경청’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다. 프로그램 중에 한 사람을 중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그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 한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조직에서 일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결하기 원하는 한 가지 주제를 떠올리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코칭교육 내용대로 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간은 당사자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고, 스스로 반응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고민을 말하기 시작하자 모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질문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그 일은 어떤 부분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언제 실행해보시겠어요?”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속에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문제가 아닌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 그를 돕는 대화로 터치포인트에 집중해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문제해결 여부를 떠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살아난다. 사람이 살아나면 더 어려운 문제도 그 사람을 통해서 풀릴 수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이다.

적극적인 경청은 그 사람의 이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진 사람의 내면을 봄으로 ‘무엇’과 ‘어떻게’의 해결자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현상과 그 현상을 둘러싼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지체를 향하고 있는가?

그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열매

우리가 적극적 경청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깊은 문제까지 드러내게 된다.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내면의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경험을 드러낸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정도

영화와 함께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는 ‘다시 태어나는 자’ 에게만 보인다!

로히르 반 데르 바이덴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융합심
리학연구소장)

애니메이션 ‘플란
다스의 개’ (1975년)
는 일본 작품이다.
영국 여류작가 위다
가 1872년에 쓴 동
명소설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원작에서
주인공 네로는 15
세의 화가 지망생이
다. 늙은 개 파트라
슈와 함께 우유 배
달을 하며 살아간

다. 그는 벨기에 안트베르펜 성모 대성당에 걸
린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를 보고 싶어 하지만 관람료가 없다. 그러다
가 크리스마스에 루벤스 작품이 무료 공개되
자 뜻을 이루지만, 안타깝게도 파트라슈와 함
께 차가운 성당에서 추위에 떨며 세상을 떠난
다는 슬픈 이야기다.

루벤스를 비롯해서 보티첼리, 카라바조, 렘
브란트 등 많은 화가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지
는 그리스도’를 그렸다. 오늘 소개하는 로히
르 반 데르 바이덴(1399~1464년)도 같은 제목
의 그림(1443년)을 그렸다. 스페인 수도 마드
리드에 위치한 프라도미술관에 소장되어 있
는데, 미술관이 열리는 날이면 관람객이 가장
많이 물리는 작품이기도 하다. 필자도 사흘 연
속 프라도미술관을 찾아 진종일 머무르며 오
랜 시간 묵상했던 그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내 안의 예수님을 깨달아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

플랑드르 르네상스의 거장이었던 바이덴은
당시 벨기에의 루벵이라는 도시에서 활동하
던 석공수 조합으로부터 그들의 경당 제단화
로 쓸 그림 주문을 받는다. 성당이 모두를 위
해 예배드리는 열린 장소라면, 경당(經堂)은
특정 신자 집단의 편익을 위해 마련된 폐쇄적
인 경배 장소이다.

오늘 그림과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요한
복음 19장(38~42절)이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
경받는 유대 공의회원(산헤드린)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
라를 기다리는 자’ (막 15:43) 혹은 ‘선하고 의
로운 요셉’ (눅 23:50)이라는 수식어처럼 신실
하면서도 권력과 부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해달
라고 요구한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
절명의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했던
것이다. 뜻밖에 빌라도는 백부장을 시켜 알아
본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준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으로 슬퍼한다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길에 동행한 이가 있었
다. 니고데모이다. 니고데모는 독실한 바리새
파 유대인이었다. 그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산
헤드린이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가
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쌀 때,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져온 많은 양의 몰약과 침향을 내놓
으며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 예수님을 장
사지낼 준비를 한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의 한 사람이었
다. 그는 일찍이 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
와 거듭남의 비밀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물
고 그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
신 선생님이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
다”(요 3:1~3).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육체적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다시 탄생
하는 것을 말한다.

융심리학자인 존 샌포드에 의하면 우리 개
개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우리의 자아(ego)는 거짓
된 인격의 중심이 아니라, 새롭고 진정한 중심

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의
새로운 중심을 융심리학에서는 ‘자기(self)’라
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내면의 그리스도’
혹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이라
고 부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자신이 가졌던 일체의 권위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내 안의 예수님을 깨달
아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 ‘다시 태어남’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자. 예수님이 십자
가 참형을 당하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뿔
뿔이 흩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 공회지
도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님 죽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을 지켰다는 것은
무척 큰 의미가 있다.

바이덴의 그림은 바로 이 장면을 표현한 것
이다. 바이덴은 그림 속의 인물들을 중세 이콘
(聖像, 聖畫)이나 다른 그림들처럼 거룩하고
신성한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
음이라는 대 사건 앞에서 슬픔으로 힘들어하
는 인간적인 고통을 다소 극적으로 과장하기
도 하면서 세밀하게 묘사한다.

그림 중앙에 위치한 돌아가신 예수님의 팔
은 축 늘어진 십자가 모양이다. 예수님 뒤편에

서 새하얀 세마포로 양손을 감싼 채로 상반신
을 떠받치고 있는 이가 니고데모다. 니고데모
는 유대인의 상징인 키파 모자를 쓰고 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온 그 세마포일 것이다.
니고데모의 뒤편에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의 종으로 보이는 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
라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것을 돕고 있다.
사다리는 땅(인성)에서 하늘(신성)을 향한다.
그러므로 사다리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었
다가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양성성을 상징한다.

역시 세마포로 양손을 감싼 채 예수님의 하
반신을 들고 있는 이가 아리마대 요셉이다. 그
의 눈은 예수님의 시신과 그 아래 혼절해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오
른손 아래쪽에 있는 해골을 응시하고 있다. 여
기서 해골은 ‘아담의 해골’이다. 아담이 저지
른 원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새 아담인 예수님
의 피로 씻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물론 예
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장소가 골고다 즉, 해
골이라는 뜻을 가진 언덕이기도 하다.

육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남성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다. 그
뒤의 여성은 마리아의 사촌 마리아들로 추정
된다. 비탄에 젖어 울고 있는 여인들의 표정과
맨 오른쪽 각지를 끼고 다소 기이한 자세로 슬
픔을 억누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인간적인 슬픔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바이덴은 특별히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주변 인물들의 등을 휘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미술사가들은 ‘크로스보(crossb
ow) 자세’라고 한다. 크로스보는 석궁(石弓)
이란 뜻인데, 사람의 몸을 팽팽하게 당겨진 석
궁의 활시위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
름이다. 예수님이 받은 고통이 더 이상 구부러
지기 힘든 활시위 같다는 것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죽 늘어진 모습과 마리아의 기절
한 포즈도 동일하게 석궁 모양이다. 맨 왼쪽의
사도 요한의 등과 가장 오른쪽 막달라 마리아
의 굽은 등 역시 석궁 모양으로 굽어있다. 육
신의 어머니 마리아나 제자들은 물론이고, 주
변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형언
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고통의 공감대를 가진
일심동체다. 바이덴은 그림을 통해 그것을 특
별히 강조하고 있다. 바이덴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으로
슬퍼한다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
니다. 한밤중에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
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이에
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진실로 예수
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 온라인 OBC 갈라디아서 간증



/ 이소영 성도(특별한초대공동체)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복음

나는 OBC 갈라디아서 과목을 수료한 경험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수강한 이유는 간단하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큰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의 어디를 펼쳐도 대체로 많은 문장들이 “해야 한다”는 당위와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는 종결어미로 끝을 맺는데 반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율법적 지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만약 구원을 얻는 방법이 모세의 율법을 빠짐없이 준수하는 데 있다면 애초에 나는 예수 믿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물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다행히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내 믿음조차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임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을 위해 성령의 강림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교리를 믿으려 하고, 신앙

의 감회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신천지 교인들이 떠올랐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을 모두 힘들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음에 마음이 아팠다. 1차적으로는 이단의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지만, 기성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훈계하고 돌보지 못한 탓이리라. 나 또한 같은 순의 지체들이나 같은 팀의 팀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야 했다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해서 좋다. 박종길 목사님이 부드러운 어조로 복음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강의보고서를 점검해주시는 박성천 목사님이 강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 설명과 나의 질문에 대한 풍부한 답변을 메일로 보내주셔서 매우 유익했다. 목사님들의 친절한 양육 방식을 본받아 나도 다른 사람들과 성경공부를 하는 경우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온화한 자세로 임해야겠다.

■ 온라인 QT 참가자 간증



/ 권지은 성도(브릿지33+공동체)

“묻고, 듣고, 행하고, 누리라”

40대가 되고 많은 것이 변해갔다.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점점 더 분주해지고 일 중심, 능력 중심, 결과 중심이 되어가는 나를 보게 된다. 그 분주함 속에서 주님과 친밀감이 점점 떨어짐을 느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로 나의 일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멈춰졌다. 원래 듣고자 했던 양육 강좌들도 폐강되었다. 그렇게 내 계획에는 없던 온라인 QT스쿨을 듣게 되었다.

첫 강좌부터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는 ‘분주함’이라고 말씀하셨다. 분주함의 원인은 교만과 게으름이라고 지적하시며, 게으른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별하지 못해 점점 더 분주한 삶을 살게 된다고 경고하셨다.

두 번째 강좌에서는 신앙인에게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신앙인의 삶의 패턴은 “묻고, 듣고, 행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묻고, 듣고, 행하고, 누리라”는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각인시켜주셨다.

얼마 전 내가 책임으로 맡고 있던 정부사업이 6년 만에 탈락하게 되었다. 매년 정부사업

을 수행하면서 극히 분주하고 때때로 너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께서 선한 결과를 주시고, 어떠한 결과를 주든지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다. 올해 개인평가는 좋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미션정 사유에 대한 총장보고용 자료를 만드느라 분주했지만, 이 가운데도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 삶에 은혜의 비가 주룩주룩 내렸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은 “너 혼자서 잘 하니?”, “왜 나에게 묻지 않니?”라고 책망하시며 물어 오신다.

많은 것이 멈추고 조용해진 이 시기에 눈을 들어 주님의 시선을 느낀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며 축복의 길로 가도록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작은 문제도 주님께 가져와 묻고,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하고자 한다. 또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자 한다.

■ 6월 세례 간증



/ 배기선 팀장(세례사역팀)

세례 그 자체가 축복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역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일상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세례는 해야 하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어 6월부터 세례식을 다시 하기로 했다.

이번 6월 세례는 총 11명의 성도가 신청했다. 보통 많게는 20~30여 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던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6월 세례는 안전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된다. 세례 교육과 문답은 6월 14일부터 일상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된다. 세례는 6월 28일 안전을 위해 두 번의 예배에서 6명씩 나뉘어 준다. 상황이 좋아지고 차세대가 교회로 돌아온다면 유아세례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7월에도 성인들을 위한 세례식이 진행될 것이다.

누구나 세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나는 70년 즈음 하사관학교에서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 믿음보다는 빵을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걸로 기억한다. 세례사역을 섬기면서 성

도들의 은혜와 간증을 들으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다.

올해 세례사역팀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세례를 받는 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자는 계획이 있었다. 이전에는 세례자의 간증을 모아 간증집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과 첫사랑이 담긴 간증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른다. 갑작스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그러지 못하게 된 게 너무나도 아쉽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일상 속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기간은 정말 힘들었다.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최근에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 모든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다. 이 축복된 장소에 오실 때 삶을 점검해 보고, 새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세례를 받으면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 서빙고공동체 공감소비운동 간증



/ 오기호 다락방장(서빙고공동체)

다음학교는 주님 말씀하신 연합의 장(場)

사단법인 느헤미야코리아 다음학교(이하 다음학교)는 서빙고공동체에 속해있는 전준(원장), 전사라(교장) 성도님이 2011년 설립한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다. 작년까지 총 6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생들은 매년 국내 대학 및 미국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탈북학생 40명, 남한 학생 13명으로 총 53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큰 통일을 위해 작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한국 최초의 통합학교이다.

2019년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울형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공교육과 달리 대안교육은 교육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다음학교는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올해 2월 지원했는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해 선정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던 다음학교의 또 다른 은혜의 간증이다.

서빙고공동체는 2013년부터 4개 다락방이

돌아가며 격주로 다음학교를 방문해서 섬기고 있다. 서빙고공동체는 지난 5월, 공감소비운동을 신청해서 사회선교부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았다. 그 온누리상품권을 다음학교에 전달해서 주방용품들 장만하도록 도왔다. 학생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주방용품들이 부족해서 요리하는데 상당히 불편했었다. 우리가 선물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남대문시장에서 각종 주방용품을 장만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거기에 더해 서빙고공동체는 학생들이 검정고시 보는 날 떡과 닭강정을 나누기도 했다.

서빙고공동체에게 있어 다음학교는 사랑과 섬김의 소중한 나눔 현장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연합’의 의미를 다음학교를 통해 되새기고 있다. 연합하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북한 청소년들이 통일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는 것을 실천하는 교육현장인 다음학교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연합의 장(場)이다.

장로칼럼

나에게 힘과 감사와 기쁨을 주신다



문병만 장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아랍에미리트(UAE)의 주말은 한국과 다르게 금요일과 토요일이다. 나는 주중에는 바라카 현장(바라카 원자력발전소; UAE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바라카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주말(금, 토요일)에는 아부다비에 있는 가족과 함께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바라카 교회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7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매주 바라카 인근 루와이스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께서 방문하여 말씀을 전해 주신다. 필리핀,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이주민 근로자 100명을 섬기고 있다. 바라카 현장은 한국인 1,500명, 외국인 21,000명이 일했던 대규모 건설현장이다. 지금은 건설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7천명이 일하고 있다.

아부다비에서의 금요일 아침은 침대에서 일어나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성가대 개인 연습을 한다. 그리고 오후 1시에 교회에 모여 모든 성가대원들이 연습을 한다. 오후 3시에 금요일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순별로 흩어져서 나눔을 갖는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김태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과 섬김으로 성인예배, 차세대예배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현지 정착과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배에 즐겁게 참여하고, 서로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차세대 아이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교육상담이 있으며, 성인들을 위해서는 큐티 베이직, 성경통독, OBC, 예비순장교육 등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아기가 생각된다.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모이는 순모임은 순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다. 이곳에서 경험한 다양한 일들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기에 처음 정착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다.

아부다비에서 40년 전부터 시작된 아부다비 한인교회로 시작했던 교회가 지난 2011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로 이어져 올해 6월 5일 ‘창립 9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감사 목사님께서 방문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영상예배로 부흥회와 감사예배를 대신하게 되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이해영 목사님과 함께 이틀 동안 부흥집회와 금요일 창립 9주년 기념감사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근거하여 ‘두 증인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증거하신 말씀이 이슬람을 품고 중동과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도전과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무더위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신다. 아부다비와 바라카를 오가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신다.

권사칼럼

지금의 삶이 기적이다



양차심 권사
(신용산공동체)

내가 온누리교회에 온 이유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였다. 큰 교회이니까 프로그램이 많을 것이고, 그것이 친구를 전도하는데 좋을 것 같았다. 그러다 청년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세월이 흘러 이 시간까지 왔다. 나름 순탄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다. 그러다 50대 초반부터 고난의 연속이 시작됐다.

회사 확장으로 승승장구할 때, 병명을 모른 채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수술 후 회복되고 안정을 찾았을 때에는 자동차를 폐차할 만큼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그때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불면, 무기력, 우울증 등으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쿵’ 하던 사고의 순간 ‘나 지금 천국 가면 주님 앞에 무어라 말하지?’ 하는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갔다. 내 것을 채우기에 열심히 달려왔고,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께 묻지 않고 나의 열심과 의를 드러내며 구제와 봉사를 했다. 남을 판단하고, 상처 받고, 주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온 것이냐며 주님께 여쭙보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어느 정도 회복되어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회사에 납품하시는 분이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다치는 사고를 보게 되었다. 전보다 더한 고통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인생의 전반기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인생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그러면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형부가 보령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 그곳을 25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느

낌은 공허한 농촌교회의 현실이었다. 몇십 년을 믿었으나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물질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열악한 농촌교회를 보면서 ‘이곳에 진정한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느꼈다. 온누리교회의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초교파적으로 보급하고, 농촌교회 목회자나 평신도들을 양육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과 살고 싶은 꿈을 품게 되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에서 받은 훈련을 나누고 봉사하며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보령에 치유와 회복의 공간인 힐링 농장을 만들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상 운영해온 회사가 어려워졌다. 버티기 힘들어 기도하는 중이다. 그동안 극심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다.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다. 보령 힐링농장은 지금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세상에서의 물질과 성공, 명예를 얻기 위해 영혼은 피폐해지고 욕심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주셨다. 그 브레이크 속에서 주님의 만나를 받아먹으며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기적이다. 모든 것을 내어놓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신앙에세이



조경근 선교사
(2000선교본부)

최근 한국 사회에 많이 부각된 개념 중 하나가 ‘꼰대’라는 단어다.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꼰대질)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됐다. 한때 영국 BBC방송이 ‘오늘의 단어(Word of the day)’로 ‘kkondae’ (꼰대)를 소개하며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다른 사람은 늘 잘못했다고 여김)’이라 풀이하기도 했다. 오늘날 꼰대라는 말은 비단 젊은이들뿐만 아

니라 모든 연령층에 비호감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연륜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꼰대로 보이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숙하고 덕스러운 선배 혹은 연장자의 모델은 무엇일까?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헬퍼십(helpership)’이다.

헬퍼십이란 리더십도 아니고 팔로워십도 아니다. 리더가 리더 되게 하는 리더십이다. 요즘 TV드라마를 보면 주연배우보다 조연배우가 더 유명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한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위대한 2인자 혹은 보이지 않는 헬퍼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경에는 아론, 갈렙, 요나단, 세레 요한, 바나바 등 많은 헬퍼십의 모델이 소개되어 있다. 헬퍼십은 흔히 제2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참모

제3의 리더십 ‘헬퍼십’

리더십이 아니다. 후계자의 리더십도 아니다. 제3의 리더십이다. 최고 리더를 보좌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신을 따르는 구성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공동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섬기는 리더십이자 성숙한 리더십이다. 헬퍼십은 명령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영향력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미 선교에도 헬퍼십을 통한 사역에 대해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협력과 연합(Collaboration and Networking)’이다. 선교사가 과거와 같이 선교지에서 전면에 나서 사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교단,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에는 헬퍼십을 기본 원리로 삼아 선교를 배우는 과정이 있다. 온누리갈렙선교학교이다. 이번 여름(7~8월)에 개

설되는 갈렙선교학교는 헬퍼십이라는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이 시대의 갈렙들이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성숙한 모습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시대의 갈렙들이 타문화권 선교, 이주민 선교, 선교사 케어, 비거주 선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사례 중심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갈렙선교학교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개설된다. 탁월한 헬퍼십을 훈련하여 세계 선교에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이 시대의 갈렙들을 갈렙선교학교에 초대한다.

갈렙선교학교 온라인 강의 모집
일시: 7월 6일~8월 24일
문의: 010-3229-5086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똑같은 단어 같지만 전혀 다른 문맥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수용적입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5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일어납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말뿐 아니라 실례를 들어줍니다.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36~37절).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또 엘가나와 한나, 사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이 왜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동정녀의 탄생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에 감동하여 마리아를 축복하고 “너는 여인 중에 복된 여인이다. 그리고 네 몸에 있는 아이도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뤄지는
통로로 자신을 드리는 ‘믿음’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38절).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대답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한 믿음의 태도입니까. 이 대답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진실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실 때 그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아멘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아멘은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리아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믿음의 순종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마리아의 모습을 봐도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면 마리아가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동행한 줄 알고 오다가 다시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라고 한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열

마나 끔찍했습니까. 예수님 당신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마음에 늘 새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모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행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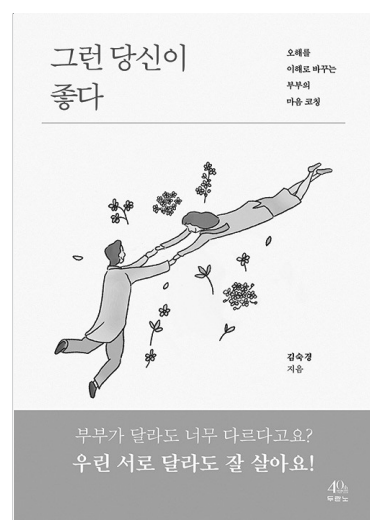
마리아가 성령이 강림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마리아는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제자로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목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지 않을 것 같은 나사렛의 가난하고 소외된 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그 순수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인사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상황, 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인사를 성령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완벽한 배우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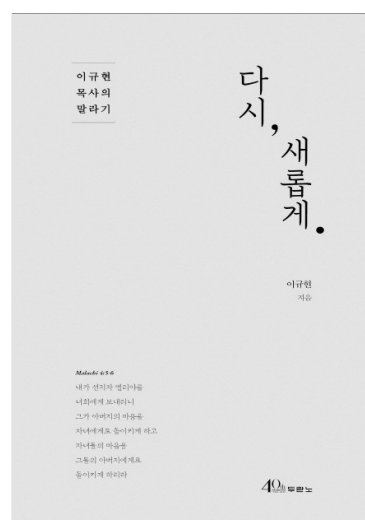


〈그런 당신이 좋다〉
김숙경 저 | 두란노 | 14,000원

이 아니어도 공감하고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이다.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한 단계 노력이 더 필요한데 부부의 신앙을 가꾸고, 자녀를 기독교 가정관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일단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말 못 할 고민이 한방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



〈다시, 새롭게〉
이규현 저 | 두란노 | 17,000원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 저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고, 아무에게나 경고하지 않으신다”고 설명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발견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다.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이 펼쳐졌고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불투명하기만 하다. 예배당에 온 성도가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절이 너무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간 측면도 있다. 잠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익숙했던 습관에서 벗어나 달라진 현실을 적응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전 세계를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신간 〈다시, 새롭게〉는 말라기서를 바탕으로 흔들리는 신앙의 세계를 바로잡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한다. 2400년 전 상황과 지금의 시대가 닮았다. 혼탁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

CGNTV



나침반

맞춤특강

시즌2로 새로워진 맞춤특강 나침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매주 월, 화 오전 8시 20분 방송

6월 22-23일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변화”

최윤식 박사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6월 29-30일



“코로나19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다”

이재갑 교수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응TFT 위원장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는
CGNTV 웹사이트와
CGNTV YouTube 공식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